

데이터센터 시장 성장과 연관 산업 Impact

- Legacy Economy의 귀환 -

EY한영 산업연구원

April 2025

Insight Report #25-053



The better the question. The better the answer. The better the world works.



Shape the future
with confidence

Contents

I 데이터센터 시장 기회 조망

II 섹터별 시장 및 주요 Player 현황

1. 전력 및 Equipment 부문
2. 에너지 부문
3. 건설/부동산 및 파이낸싱(PE)

III 시사점 및 제언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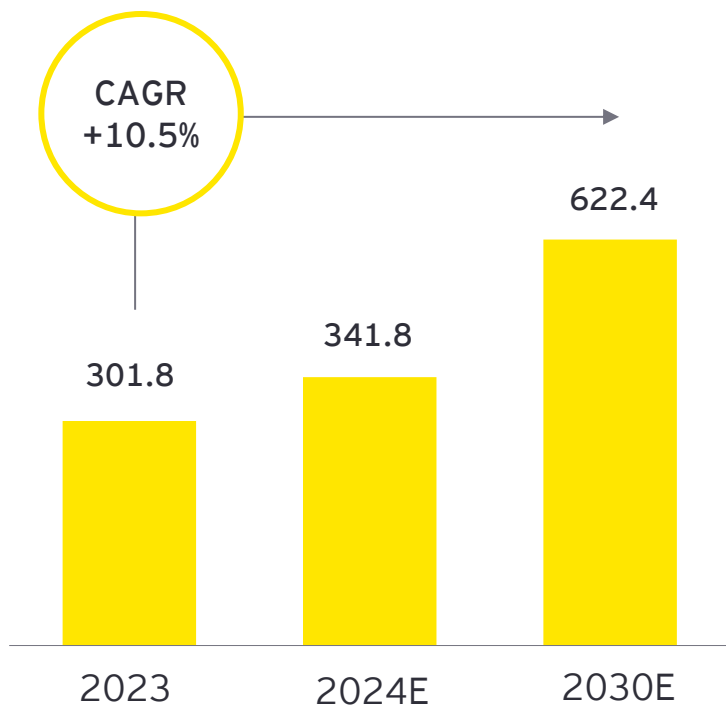
데이터센터 시장 기회 조망

데이터센터 시장의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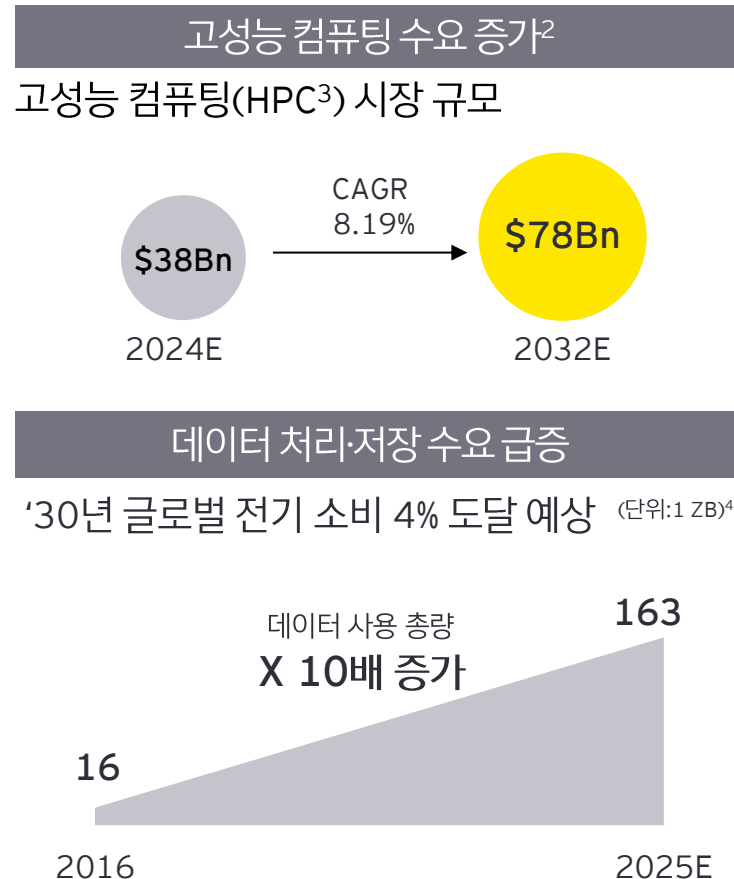
데이터센터 시장은 AI를 위한 고성능 컴퓨팅 및 대용량 데이터 처리 수요 급증에 따라 지속적인 성장이 전망됨

글로벌 DC¹ 시장 성장 전망

2023-2030E 시장 규모 (단위:\$ Bn)



Growth Driver



기업별 주요 AI 모델 및 특징

MS	■ 모델: Phi-4 ('24.12) ■ 특징: SLM, 오픈소스, 고효율 에너지 및 성능
AWS	■ 모델: Nova ('24.12) ■ 특징: 타 플랫폼 比 유연성 및 비용 효율성 강점
Google	■ 모델: Gemini 2.0 ('25.02) ■ 특징: TPU기반, 수학적 추론 성능 우수
Meta	■ 모델: LLaMa 3.1 ('24.04) ■ 특징: LLM, 오픈소스, GPT-4 比 유사 성능

1. Data center 2. 고성능 컴퓨팅 수요 증가: 인공지능, 클라우드, 자율주행 기술, 사물 인터넷 시장 본격화 3. High Performance Computing 4. 1 ZB = 1 Billion TB
Source : Global Growth Insights, IEA, EY Analysis

AI 모델의 성능 경쟁과 스케일링 법칙

AI 모델 성능과 학습량 간에 적용되는 ‘스케일링 법칙’은 주요 기업들 간 초거대 AI 모델을 위시한 규모의 경쟁을 촉발시키는 배경이 됨

초거대 AI 모델 출시 현황

주요 AI 모델별 학습 데이터 양¹

- 다양한 대용량 데이터 기반 훈련을 통한 AI모델 성능 확보 경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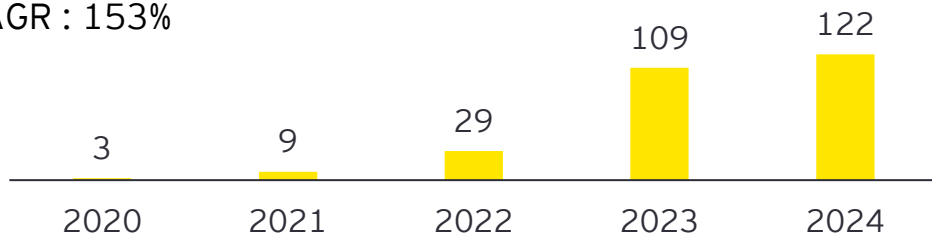
(단위: 토큰, B: 10억)

기업	AI모델	훈련 데이터
Meta	LLaMa	1,400B
Google	LaMDA	2,810B
Open AI	GPT-3	300B
MS, NVIDIA	MT-NLG	270B

연도별 초거대 AI 모델 출시 추이²

- 총 272개(누적) 초거대 AI모델 출시
- CAGR : 1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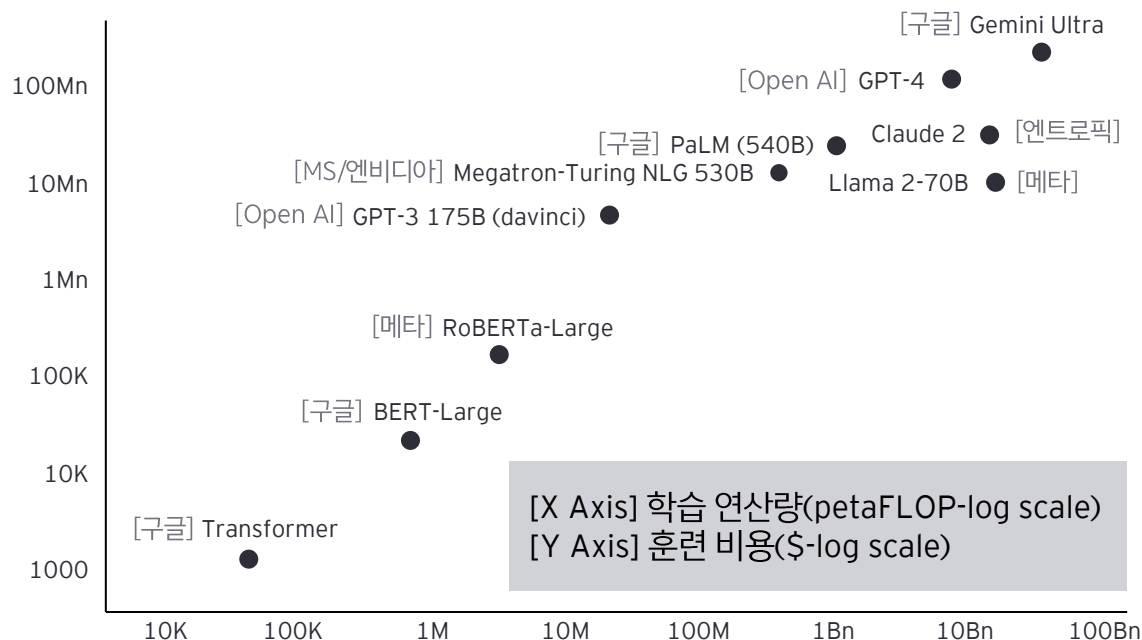
(단위: 개)



AI패권 확보 위한 규모의 경쟁 확산

주요 기반 모델 훈련비용 및 학습 연산량³ (추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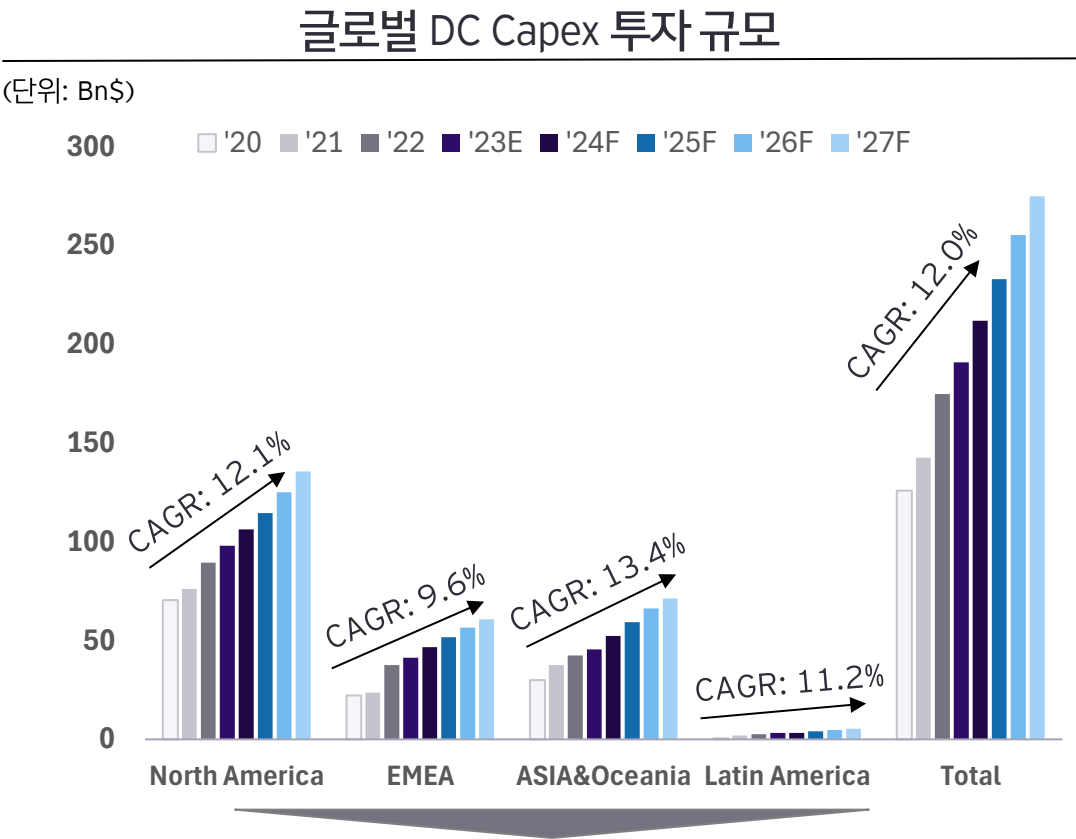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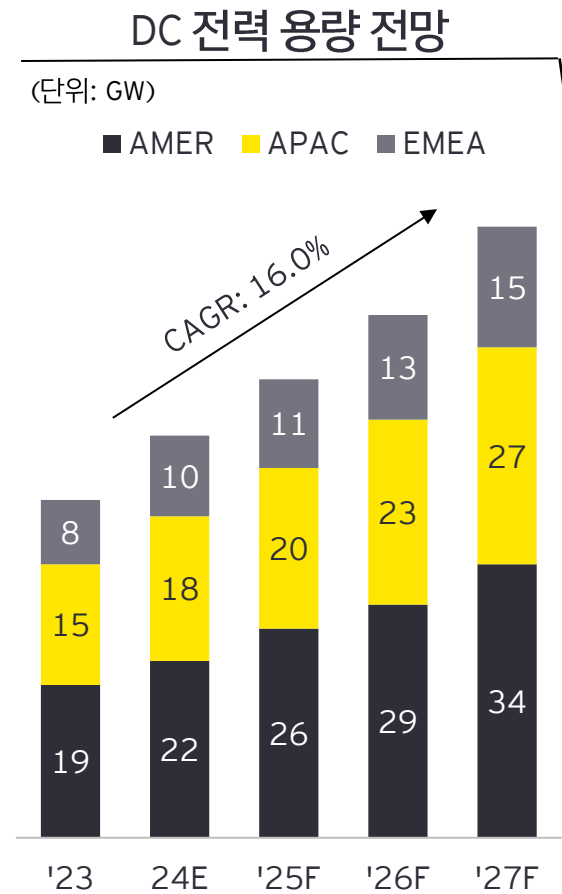
- AI 주요 기업들은 AI 패권 확보를 위한 기반모델 구축 경쟁을 진행 중이며, 이에 천문학적 비용을 투자하고 있음



1. CMA(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영국 경쟁시장국) 2. IFS(Institute for Future Studies) 3. HAI(Stanford Institute for Human-Centered Artificial Intelligence)
Source: EY Analysis

DC 개발 위한 Capex. 투자 규모 및 전망

DC 수요 증가로 필요 전력 용량 증가 전망되며, 또한 DC 에쿼티 확보 비용 역시 증가하고 있어, DC 개발 사업은 자본 조달 측면, 높은 진입장벽 형성함



DC Capex. 투자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자본조달 측면에서 진입장벽은 점차 높아질 것임

DC 에쿼티 비용

DC 공사비용 증가

"...국내 DC공사비는 1MW당 대략 100~150억원..., 최근 개발 건들은 150억원을 넘기도 한다. 총 개발비용은... 전체 비용을 100으로 가정 시, 공사비가 65, 토지비가 15, 기타 비용이 20정도를 차지..."¹

+

토지비용 지수 ('23)

Market	Cost (USD/sqm)
싱가폴	\$11,573
한국	\$9,695
홍콩	\$3,418
일본	\$3,320
...	...

1. Dealbook News Article '데이터센터의 과제, '에쿼티 확보와 운영수익 검증' 인용 ('24.12)
Source: Omdia, JLL Research, Cushman & Wakefield, Press Research, EY Analysis

DC 형태 및 트렌드

자본조달 측면 장벽 극복 및 Risk 헷징을 위한 목적으로 외주 방식의 코로케이션 데이터센터 운영 형태가 확대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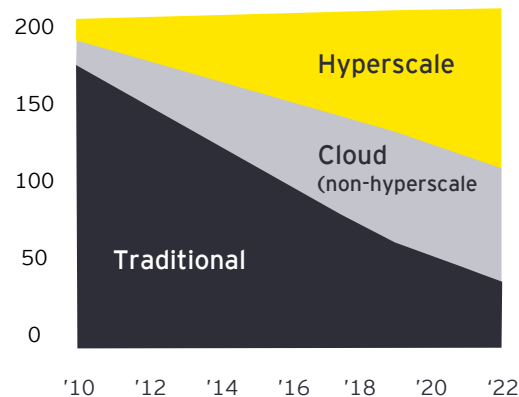
소유 형태/용도 및 규모에 따른 DC 형태

소유 형태	Enterprise	Colocation
Managed 전문 인력/시설 보유 IDC 사업자가 고객 시스템 운영/유지보수 대행	Enterprise 기업이 직접 소유 및 제어하는 DC로, 내부 목적 위해 자체 구축/운영 ex) 보안/규제 엄격한 준수 필요한 금융기관, 정부기관 등	Colocation 한 DC 내 다수 임차인에게 시설 임대하는 방식 (상면 ¹ /가상 IDC ²)
용도 및 규모	Edge ⁶	Hyperscale
Cloud-based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주 목적의 DC (IaaS ³ , PaaS ⁴ , SaaS ⁵) ex) AWS, GCP, Azure 등	Edge⁶ 네트워크 및 최종 사용자/장치 근처 소규모 DC ex) 5G, IoT, 자율주행 등 실시간 데이터 장점	Hyperscale 37,161m 이상 초대형 DC, 대용량 데이터 처리 특화 ex) 주요 사용기업: OpenAI, Facebook, Tesla 등

하이퍼스케일/코로케이션 DC 시장 확대

유형별 DC 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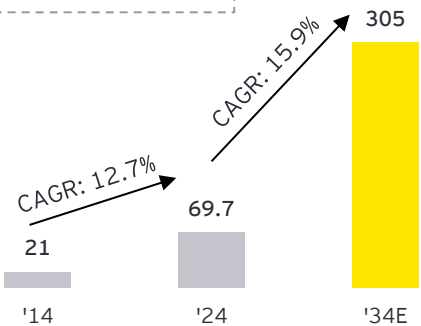
(단위: 개/년)



코로케이션 시장 성장 추이

(단위: \$Bn)

[주요 기업 '23 매출액]
 ■ 에퀴닉스(\$7.7Bn)
 ■ 디지털리얼티(\$5.5Bn)



코로케이션(DC 임차)의 장점

- 1 DC 구축 시간/ Capex 투자 비용 절감으로 빠른 시장 확장 가능
- 2 보유 서버 유지 및 관리의 용이
- 3 수요에 따른 탄력적인 서버 확장 또는 축소 가능

1. 상면: 기업 또는 개인 대상 IDC 일정 공간 임대, 2. 가상 IDC: 독자적인 IDC 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은 채 IDC의 일정 공간을 임대, 고객에게 코로케이션, 호스팅 제공 서비스 3. Infrastructure-as-a-Service: DC를 통해 서버/스토리지 등 컴퓨팅 자원을 빌려줄 수 있는 서비스 4. Platform-as-a-Service: DC를 통해 소프트웨어 서비스 개발 시 필요 플랫폼 제공 서비스 5. Software-as-a-Service: 클라우드 환경에서 DC를 통해 운영되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6. 네트워크 망 통신 소비자의 디바이스(스마트폰, 스마트TV, 태블릿 및 노트북)에 근접 위치해 데이터/콘텐츠 전송 지연(latency) 최소화 용도
 Source: CBRE, KB증권, IEA, EY Analysis

DC 형태 및 트렌드

[Back-up] 데이터센터 진화 과정: 기술발전, 비용 효율성, 비즈니스 요구 사항 변화 등을 반영하며 그 형태가 진화

	(‘95-’96) Enterprise Computing Dawn	(‘99-’00) Internet Revolution	(‘06-’07) Cloud Computing Era	(‘15-’16) Scale Revolution	(‘23-) AI Transformation
	메인프레임 중심, 기업 내부 IT 인프라 구축	웹 서비스 등장, 인터넷 중심 아키텍처 확산	AWS, Azure, GCP 등장, 클라우드 모델 활성화	대규모 클라우드 인프라, 데이터센터 대형화	AI 최적화 DC, 초거대 AI모델 훈련/실시간 적용
구조	Mainframe ¹ 기반, 중앙 집중형	클라이언트-서버아키텍처확산	인터넷 기반 클라우드 서비스	초대형규모데이터센터등장	AI 특화 데이터센터
확장성	Low (물리적 서버확장 제한)	Medium (서버 추가 가능)	High (On-Demand Resource ³ 활용)	Very High (SDI ⁵)	Very High
운영방식	자체 운영(On-Premises ²)	일부 클라우드/호스팅	클라우드 시대 개막	클라우드 + 코로케이션	코로케이션/w 인터커넥션 ⁶
비용	Very High (H/W직접 구축)	Medium (월단위 정액제)	Capex. 투자 불필요 (장기사용 불리, 종량제 모델 ⁴)	Medium (IT 유지보수인력 필요)	Medium (AI 전용 인프라 제공)
주요 적용분야	금융, 제조, 공공기관	웹서비스, e커머스, 인터넷기업	SaaS, 빅데이터 분석, 클라우드 네이티브 앱	글로벌 AI 서비스, 초대형 데이터 처리	생성형 AI
	IBM 메인프레임(MF) 시장 확장	닷컴버블및인터넷 서비스 확산(Google, Amazon, Yahoo 등장)	AWS, Azure, GCP 등 클라우드 서비스 시작	초대형 하이퍼스케일 DC 확산, 클라우드 서비스 글로벌 확장	AI 전용 DC 등장, 초거대 AI모델 훈련 인프라 확대 (OpenAI, GPT-3, DALL·E 출시)

1. 메인프레임(Mainframe): 대규모 데이터 처리/트랜잭션 처리 위해 설계된 고성능 중앙 집중식 컴퓨터 시스템 2. 온프레미스(On-Premises): 기업이 자체적으로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비 등 직접 구축운영 방식,
3. 온디맨드 리소스(On-Demand Resource): 필요한 만큼 즉시 할당, 사용 종료 시 해제 가능한 IT 인프라(컴퓨팅,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 의미, 4. 종량제(Pay-as-You-Go): 사용량 기반 요금 부과 5. Software-Defined Infrastructure: H/W 중심 IT 인프라(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를 S/W 통해 가상화 및 자동 제어하는 기술 6.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거나 운영·관리 주체가 다른 데이터센터 인프라를 네트워크로 상호 연결하는 서비스

AI DC의 등장

전 세계 화두인 생성형 AI의 폭발적인 수요와 함께 대용량 데이터 처리 위한 AI DC 등장, 관련 인프라 투자 확산 추세임

일반 데이터센터		AI 데이터센터
데이터 저장/처리 위한 서버 중심		인공지능 알고리즘 훈련, 실행 위한 고성능 H/W 및 S/W 중심
	VS	
범용 연산 및 데이터 저장	주요 목적	AI 학습 및 추론
거리 단축/실시간성 중요	로케이션	학습/추론 용도에 따라 이원화 ¹
범용 컴퓨팅 기술	주요 기술	고속 메모리/고성능 냉각시스템
CPU 서버	하드웨어	AI 특화 고성능 칩(GPU, TPU)
주로 대용량 저장소 요구	스토리지 요구사항	고속 입출력(I/O) 및 대용량 처리
AI DC 대비 낮은 전력	전력 소모	AI 연산으로 100MW↑전력 소모

AI 데이터센터 특징

- 1 자본집약적**
 - 막대한 초기 투자/지속적인 유지보수 비용
- 2 기술집약적**
 - GPU 등 고성능 H/W 사용, 가상화, 보안시스템 적용 등 기술집약도 높음
- 3 고에너지 소비**
 -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 24/7 가동 및 냉각 위한 막대한 전력 소모
- 4 광범위한 인프라 연결**
 - 전력망, 통신망, 수자원 활용 등 사회 인프라 접근성 좋은 곳 주로 위치

1. AI 모델은 '학습'과 '추론'로 구성되며, 학습 모델은 짧은 지연 시간 중요도가 낮아 전력량 풍부한 외곽 지역 신설되나, 실시간 답변 중요도 높은 추론 모델은 기존 DC와 동일하게 사용자와의 거리 단축이 중요하여 로케이션에 이원화 트렌드 발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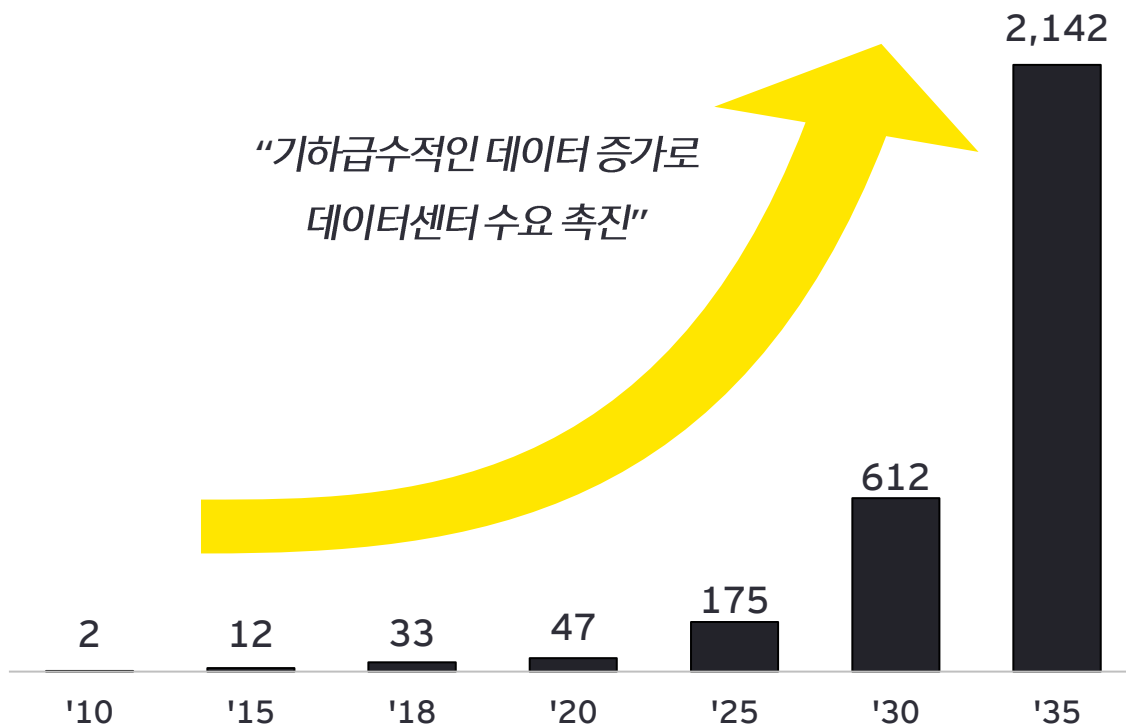
Source: SK telecom Newsroom, EY Analysis

AI DC의 등장

[Back-up] 데이터량 전망 및 생성형 AI 관련 지출

글로벌 생성 데이터 용량 전망

(단위: 1 ZB = 1 Billion T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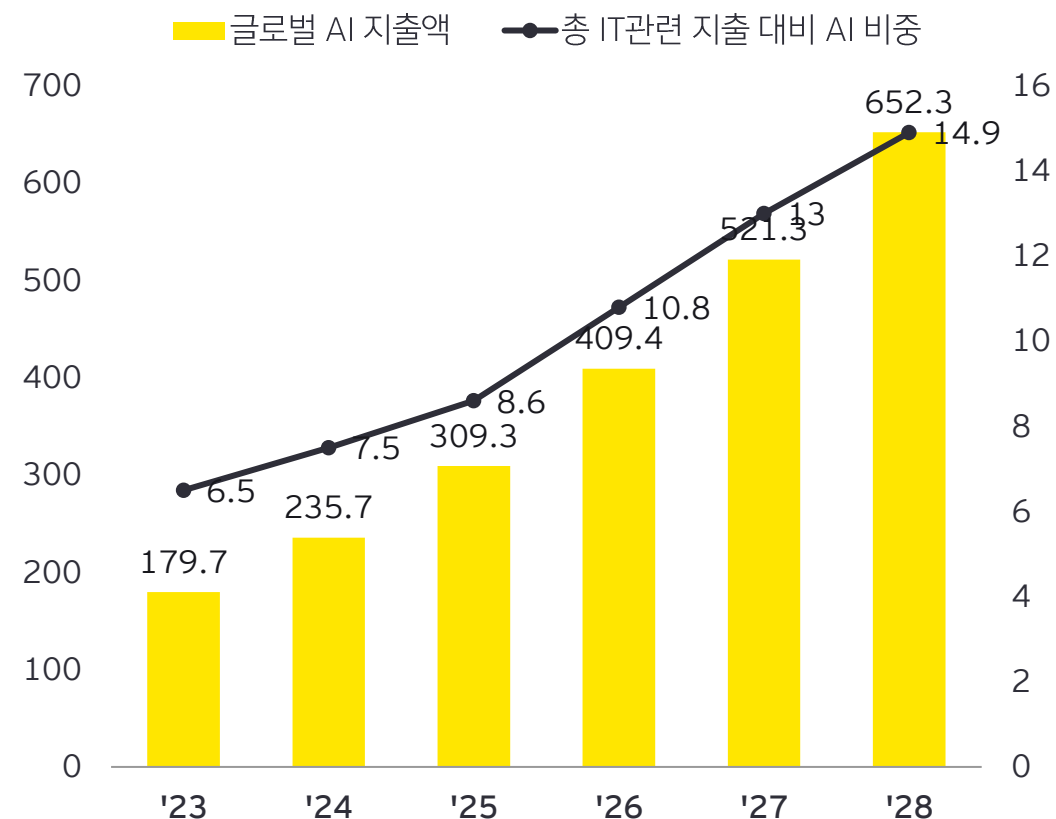


Source: CBRE, STATISTA, S&P Global Ratings

생성형 AI 관련 지출 전망

(단위: \$ Bn)

(단위: %)



AI DC 개발/운영 위한 주요 검토 사항

AI DC는 높은 데이터 처리 효율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성능 유지 위한 열관리가 필수적으로 요구됨

1 데이터 처리 효율성

1. 짧은 지연 시간(Latency) 필요¹

추론용

- 실시간 답변 요구, 실시간성 중요

학습용

- 실시간성 낮아 외곽지역 건설

이원화

2. 고성능·고효율 컴퓨팅 필요

수평적
확장

- 서버용량, 저장공간, 메모리² 등 기존 데이터센터 인프라의 양적 확장

수직적
확장

- AI모델 학습/추론 최적화 위한 GPU, TPU³ 등 특화 프로세서 성능 업그레이드 등 질적 확장

2 안정적 전력 공급 및 에너지 효율

지속가능한 전력 확보

전력 기저재

- 변압기, 고압송전선, 전력변환장치 중요도 ↑

발전소 인근 부지

- 주요통신망 인프라와의 근접성, 송배전망 등 대규모 전력시설 인근

소형 모듈형 원자로 (SMR) 도입 가능성

- 기후 조건 영향 적어 24시간 안정적 전력 공급으로 운영 연속성 확보

에너지 효율성 극대화

에너지 솔루션 통합

- 재생에너지 활용

최적 인프라 구축 및 위치선정

- 마이크로 그리드 구축
- 데이터센터 위치 선정 최적화

3 발열 통제 및 냉각 효율화

고효율 냉각 시스템

고효율 냉각 기술은 DC 성능 안정적 유지 및 운영 비용 절감과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필수적

수냉식 기술 및 개발

- DTC(Direct-to-Chip)⁴, 액침냉각⁵ 등 수랭식 냉각, 해저 DC 기술 등



[1] MS 해저 DC 시험 가동 '나틱 프로젝트'



[2] 특수 냉각 액체에 직접 H/S 투입하는 액체·액침 냉각 기술

1. '학습' 관련 AI는 latency 중요도 낮아, 해당 모델전용 데이터센터는 전력량 풍부한 외곽 지역에 신설돼, 이원화 트렌트 발생

3. Tensor Processing Unit

Source: SK telecom, MS, 삼성증권, EY Analysis

2. CXL(Compute Express Link) 처리 중인 데이터가 머무르는 메모리의 용량과 접근 속도 향상 등 양적 확장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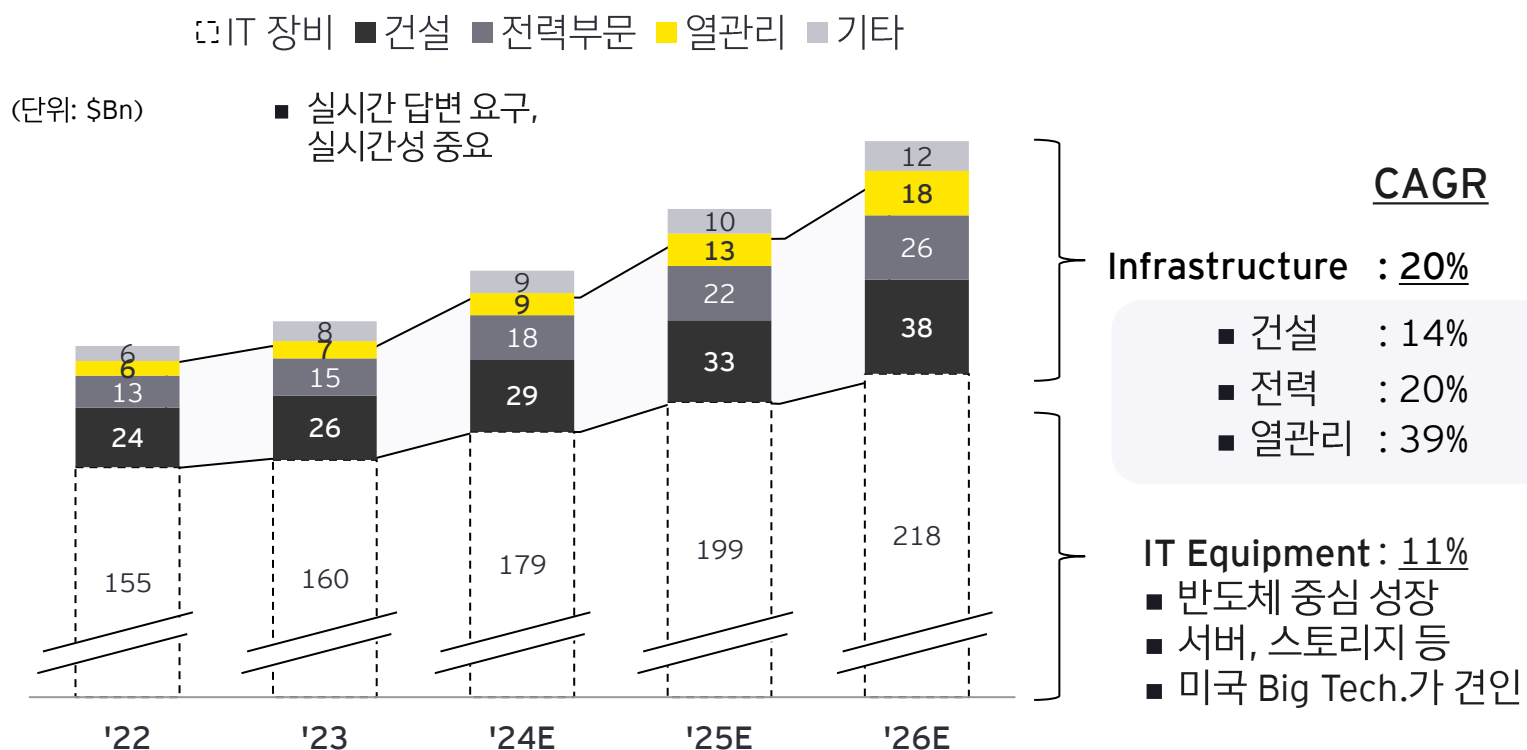
4. DTC 기술 : 서버 내부에 설치한 파이프로 차가운 용액을 흘려보내 칩 발열을 잡는 방식

5. 액침냉각 기술(Immersion Cooling): 서버 등 전자기기를 플루이드(비전도성 액체)에 직접 담가 냉각하는 기술

DC 인프라 부문 성장 기회
(건설, 전력, 열관리)

DC 시장의 개발 인프라 부문(Old Economy)이 빅테크들의 경쟁이 치열한 IT부문(New Economy) 대비 성장세 측면에서 우세할 것으로 전망

글로벌 DC 구성 부문별 성장 전망



건설, 전력, 열관리 등 DC 인프라의
안정적 공급은 DC 성장의 필요조건임

건설 부문

...각 건설사 DC관련 수주전에 적극적, 시공 외 개발, 운영까지...주요 건설사 주택 부문에 집중됐던 건설 디벨로퍼 영역, 데이터 센터로 확장...

전력 부문

LS전선은 자회사 LS그린링크를 통해 미국 해저케이블 시장에 본격 진출, 현지 에너지 인프라 기업과 약 1,000억원 규모 공급계약 체결

열관리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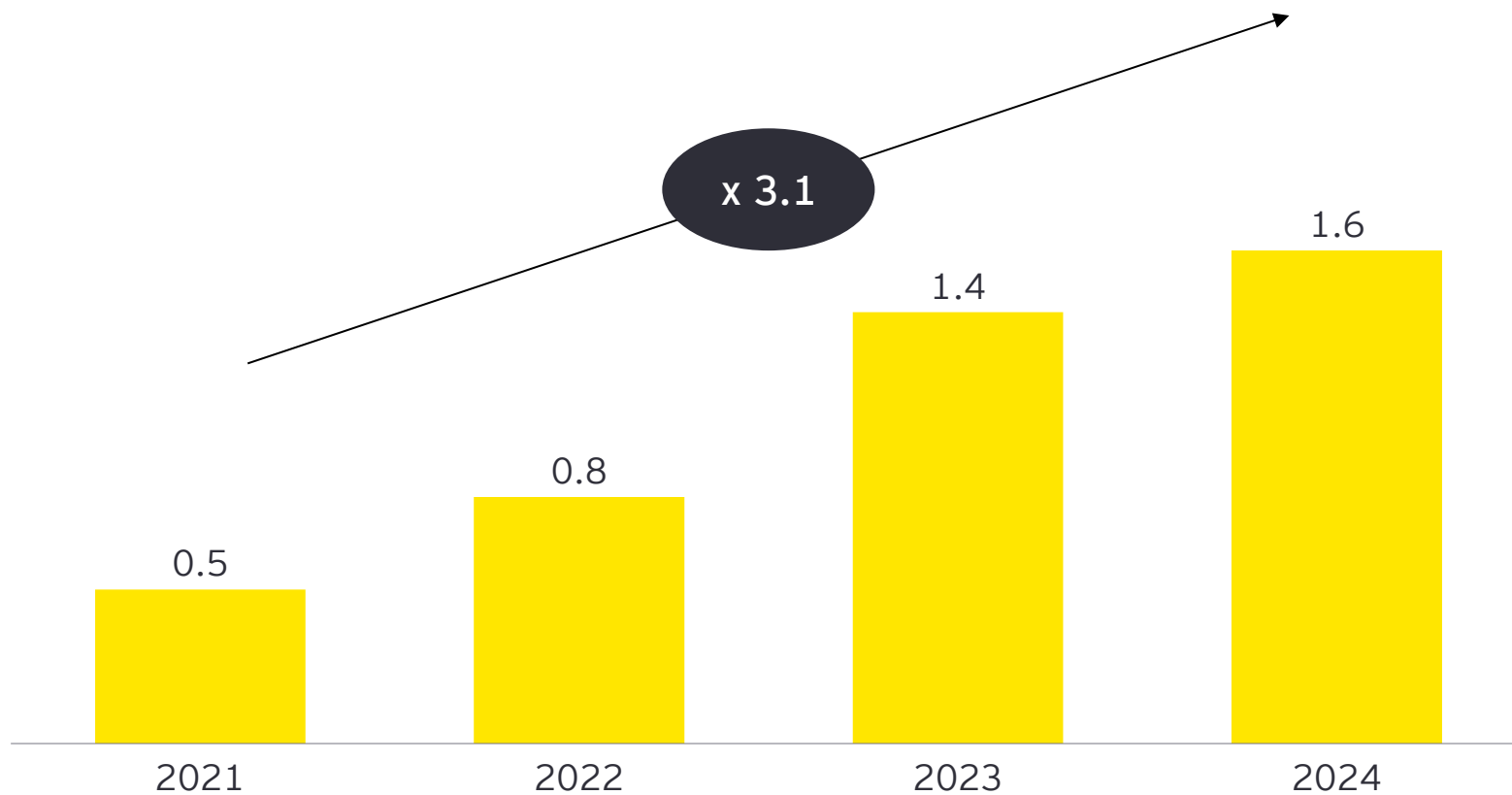
SK텔레콤은 인천 사옥에서 액침 냉각 테스트를 통해 기존 比, 총 전력 사용량 37% 절감 효과 확인, 이를 AI서비스 전용 DC에 본격 적용할 계획

DC 인프라 부문 성장 기회
(건설, 전력, 열관리)

[Back-up] 전력 설비부문 성장 사례

국내 변압기 對美 수출 동향 (HS Code: 8504)

(단위: \$ 1Bn)



Source: KOTRA, 관세청

DC 성장 제약요인 및 이슈

DC 시장의 성장에 있어, 관련 인프라의 공급 지연 또는 지속 증가하는 Capex. 투자 규모는 병목으로 작용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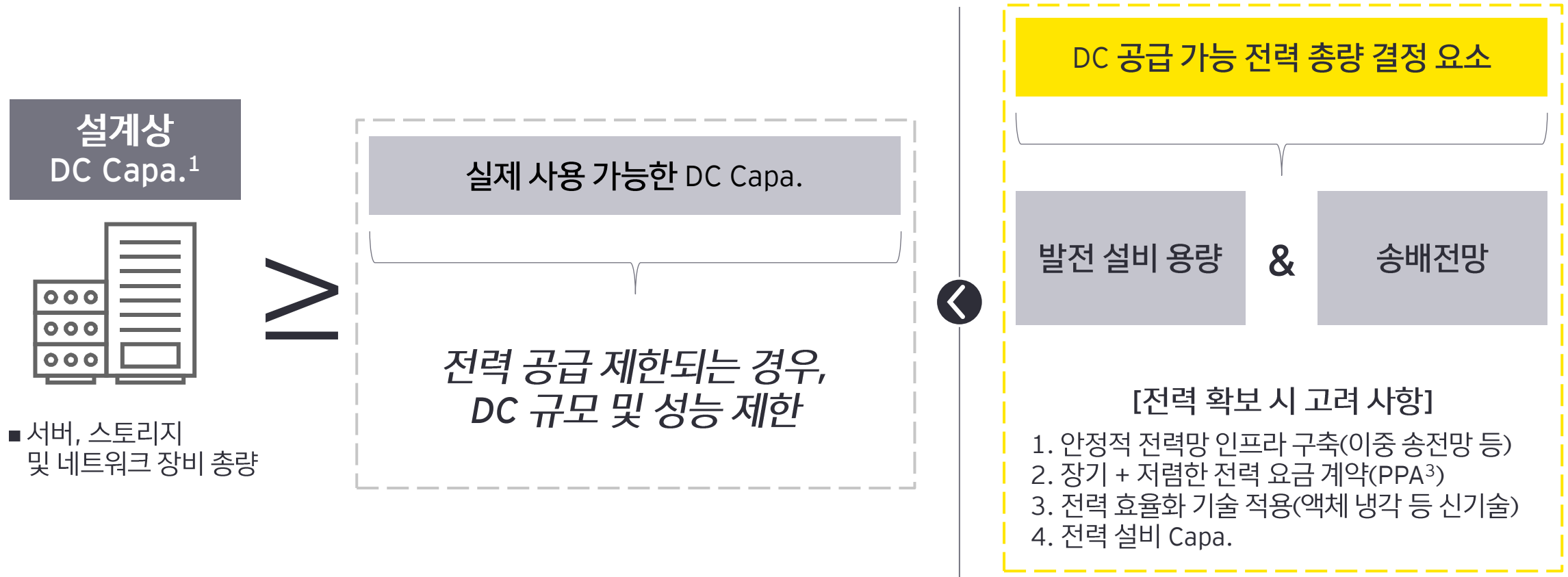
1 전력 접근성 (Access to Power)	2 부지 (Land & Location)	3 핵심 장비 ¹ (Core Equipment)	4 투자/운영비 (Finance)
주요 이슈: ■ 지역별 전력망 부족, 지속 가능한 전력원 확보 : 송전 인프라 구축 ■ 전력 단가 상승 가능성 : 전력망 용량 초과로 페널티 ■ 글로벌 ESG 정책 강화 : 화석 발전 제약 가능성	주요 이슈: ■ 기존 대도시 주변의 좋은 입지 확보 어려움(네트워크 인프라, 기후, 토지 등) ■ 지역 전력 과부하·지하수 과소비 및 냉각으로 인한 오염 발생 우려 ■ 일부 국가/지역에서 DC 신규 건립 허가 제한	주요 이슈: ■ 전력 장비 부족 : 변압기, 전력분배 장치 등의 조달 리드타임 증가 ■ 기존 공랭식²으로 AI DC 열 감당 어려움, 액체 냉각 등 신기술 필요 (Cf. 서늘한 지역 건설 검토)	주요 이슈: ■ AI DC의 높은 건설 비용 발생 (부지, 장비, 인프라, 전력망 등 기존 比 3~4배↑) 으로 인한 대규모 자본 조달의 어려움 ■ 건설비용 상승 및 자금조달 - 토지 가용성 및 토지비 증가 - 금리 상승으로 금융비 증가 -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건설비 증가
관련 유망 산업: ■ 전력 설비 / 건설 : 전력 설비 및 인프라 제조, 전력망 건설 ■ 에너지 산업 : 신재생에너지, SMR	관련 유망 산업: ■ 건설 및 부동산 개발 ■ Private Equity : 대규모 Financing 및 Risk 헷징	관련 유망 산업: ■ 전력 설비 : 변압기, UPS, ESS, 전력분배 등 ■ 냉각/공조	관련 유망 산업: ■ 부동산 개발 및 운영 (Developers & Operators) ■ Private Equity

1. DC 핵심 장비: DC 개발관련 인프라 및 냉각 시스템 한정
Source: S&P Global, EY Analysis

2. 공랭식(Cooling System): 공기를 이용, 열을 방출하는 냉각 방식으로, 데이터센터, 서버실, 전자장비 및 산업용 장비의 냉각에 널리 사용

DC 성장 제약요인 및 이슈

[Back-up] 제약을 고려한 데이터 센터 사용 가능한 Capacity



1. 데이터센터 용량: 랙(서버 보관 장치)의 수나 총 컴퓨팅 자원(프로세서, 메모리, 스토리지 등)의 용량 기준으로 측정
전력 구매 계약

Source: EY Analysis

2. PPA(Power Purchase Agreement): 전력 생산자(재생에너지 발전소)와 전력 소비자(기업, 데이터센터 등) 간의 장기

DC 시장 특성 종합

DC 시장 성장에 병목으로 작용 가능한 섹터는 새로운 성장 기회가 있음을 내포, 이러한 관점에서 Legacy Economy 섹터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DC 시장 성장 및 특성

데이터센터 시장 성장성

- 생성형 AI 모델의 등장
- 고성능 컴퓨팅 수요 성장
- 대용량 데이터 처리 및 저장 수요 폭증
- AI 모델 성능 확보를 위한 규모의 경쟁

수요 충족을 위한 데이터센터 요구 사항

- CAPEX. 투자규모의 증가
- 고효율 데이터 처리 (부지 검토, 확장성)
- 안정적 전력 공급 및 에너지 효율 확보
- 운영 효율성 확보를 위한 발열 통제

지속 성장을 위한 필요 조건 (제약요인 극복)

- 전력 접근성 확보
- 적절한 부지 확보
- 전력 인프라 장비 확보
- 대규모 자금 조달

높은 성장이 기대되는 주요 섹터 (Legacy Economy)

주요 섹터

정의 및 역할

1

전력 인프라 설비

- 데이터센터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 및 관리 위한 설비 전반
- 발전/송배전/변압/저장/냉각¹ 등

2

에너지 부문

- 전력 발생시키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원(source)
- 화석연료, 원자력, 신재생 등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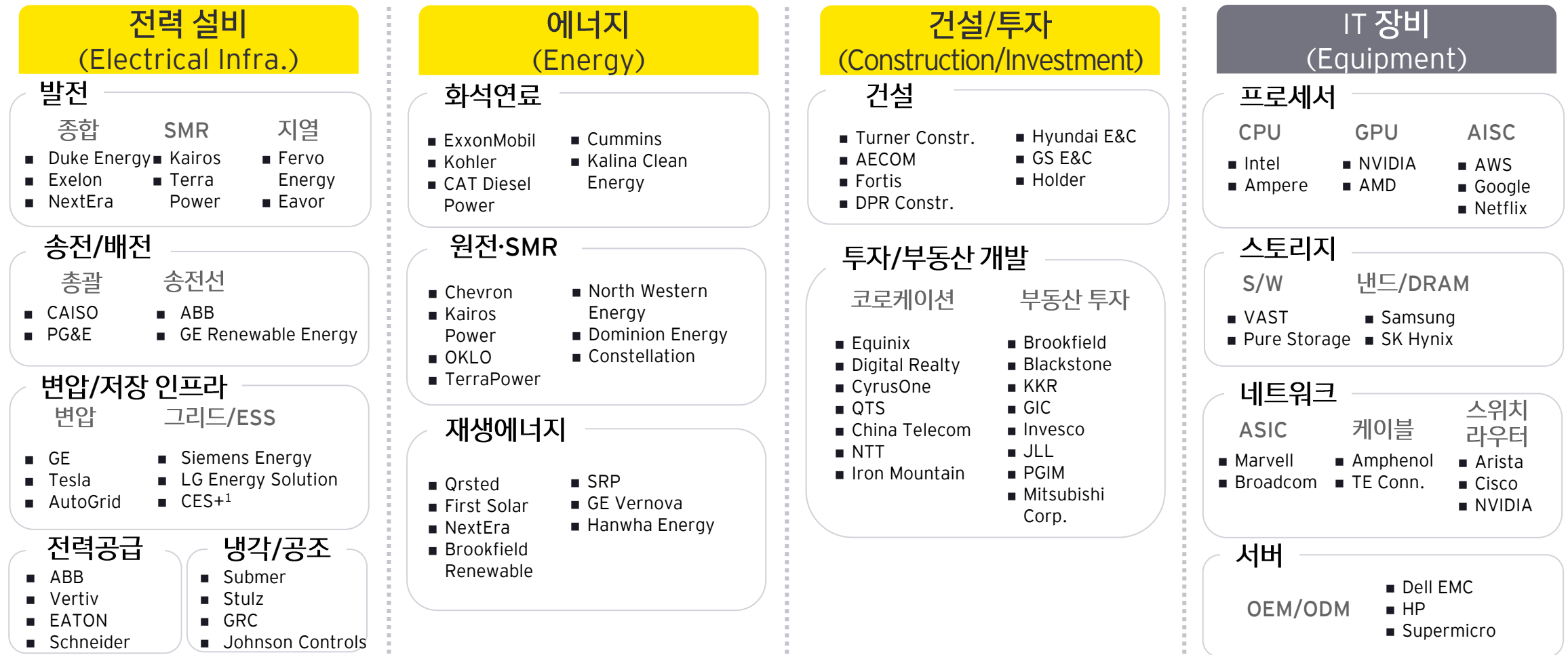
건설/부동산 및 파이낸싱

- 부지 개발 및 DC 구축
- EPC, Property Development, Private Equity 등

1. 냉각 설비는 일반적으로 전력 설비와 별개로 분류하나, DC 운영 및 전력 관리 측면에서 전력 설비 그룹 일부로 간주하기도 함

DC 시장 특성 종합

[Back-up] 데이터센터 구성 유관 사업자 참여 현황



1. Centrica Energy Storage
Source: KOTRA, EY Analysis

II

섹터별 시장 및 주요 Player 현황

1. 전력 인프라 설비 부문
2. 에너지 부문
3. 건설/부동산 및 파이낸싱(PE)

전력 인프라 설비 부문

주요한 전력 인프라 부문은 내/외부 관련 설비 및 냉각 시스템으로 구성되며,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력 관리 및 발열 통제 기술이 유망함

전력 설비 구성

주요 유망 분야

부문별 최신 공급 사례

외부전력망	■ 발전(Renewable/Traditional) ■ 송전·변전 ■ 배전	대규모/안정적 전력 확보	■ 탄소 중립(RE100¹) 위한 신재생 전력 수급 ■ 마이크로그리드 연계형 발전² ■ 스마트 송변전/배전 인프라³	NextEra Energy GE Vernova	북미 최대 재생에너지 발전 기업 (태양광, 풍력): 메타, 구글, MS 등에 PPA(전력구매계약) 공급 AWS 등 Hyperscale DC 대상, 송변전, 스마트그리드 기술 제공
내부전력 인프라	■ 변압기 ■ 무정전 전원장치(UPS) ■ 에너지저장장치(ESS) ■ 전력분배장치(PDU)	전력 손실 최소화	■ 다양한 전력 표준 맞춤 변압설계⁴ ■ 재생에너지 연계 가능한 전력망 설계⁵ ■ 전력변환 기술 소형화 및 통합화	Hitachi Energy (前 ABB) Vertiv	구글 등에 DC용 고효율/스마트 변압기, AI기반 예지보전 솔루션 제공 메타, AWS, 구글 등에 Hyperscale DC용 모듈형 통합 솔루션 (UPS+열관리+PDU+모니터링) 제공
냉각·공조 시스템	■ 공랭식(Air Cooling) ■ 수랭식(Liquid Cooling) ■ 액침 냉각(Immersion Cooling)	냉각 효율 고도화	■ 열 통로/냉 통로 격리 방식 ■ 수랭식 냉각 시스템(고온 환경 안정적, 공간효율↑) ■ 액침 냉각(저소음, 운영비 절감)	Schneider Electric Stulz	Equinix, MS, 메타, Digital Realty 등에 공랭 + 수랭식 하이브리드 냉각 솔루션 공급 고효율 공랭식 및 Free Cooling 기술 선도 기업으로 구글, SAP, Equinix 등이 주요 고객

1. 글로벌 캠페인 Renewable Energy 100%: 자사 소비 전력 100% 재생에너지 조달, 2. 대규모 중앙 전력망 의존도 낮추고 독립 소규모 전력망으로 안정성/탄소중립 동시 확보, 3. 전통적 배전망에 디지털 통신, IoT, AI 제어 기술 융합, 전력 공급 분산·복구 자동화, 4. 전력망에서 수신한 고전압을 낮은 전압으로 변환, 서버 및 IT 장비 전력 공급. 전력 표준 상이한 경우, 해당 전력 표준에 맞춘 고효율/전력 손실 최소화 설계 필요, 5. 간헐적/변동성 높은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기존 전력망에 통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전력 인프라 구조

Source: EY Analysis, KOTRA, 한국경제

전력 인프라 설비 부문

탈탄소 기조 下, 주요 DC 전력 설비 노후화 및 AI DC 시장 성장세로 관련 설비 시장은 전례없는 슈퍼사이클을 기대할 수 있음

DC 전력 시장의 슈퍼사이클 도래

01 전력 인프라 노후화

전력망 교체 주기(50~60년) 도래

미국

- 송전망 Avg. 40년↑,
- '35년까지 \$170Bn 투자

유럽

- '60~'80년대 설비 多,
- '30년까지 €580Bn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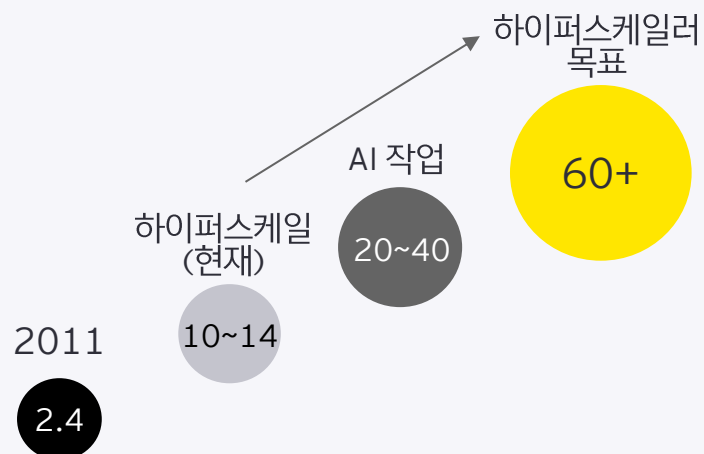
한국

- 노후 설비 70%↑,
- '34년까지 43조원 투자

02 AI 및 HPC 수요 증가

DC 랙당 요구 전력 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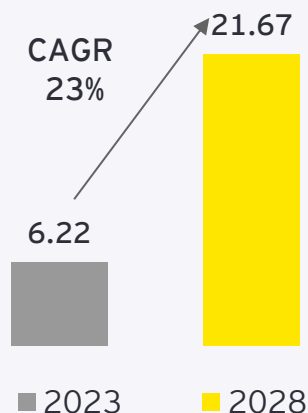
(단위: kW)



03 탄소중립 기조

Green DC¹ 시장 성장률

(단위: \$ Bn)



1. 그린 데이터 센터: 고효율 전력 인프라, 친환경 냉각 시스템, 재생에너지 사용 등 전력 소비 및 탄소 배출 최소화하는 DC
Source: EY Analysis, KOTRA, 한국경제, Research and Market

전력 인프라 설비 부문

DC 전력 인프라 시장은 기존의 Peer 그룹 이외에도 타 sector 혹은 유관 부문 Player들이 신규로 시장에 진입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음

전력 인프라 부문별 주요 Players¹

설비	기업명	Description
발전/송·변전/배전	GE Vernova	■ 글로벌 에너지 인프라 시장 점유율 30%
	Eaton Corp	■ 고효율 가스터빈 및 그리드 솔루션
	Arista Networks	■ 송전/배전 및 전선/전압 설비 美 시총 1위 ■ 전력 분배시스템 최적화 에너지 솔루션 ■ 네트워크 고대역폭 설비 글로벌 매출 1위 ■ DC 스위치 및 라우터 시장 점유율 11.1%
변압기/UPS/ESS/전력분배	Schneider Electric	■ 글로벌 전력 인프라 시장 점유율 약 17%
	Hitachi Energy (前 ABB)	■ 에너지 관리 및 자동화 솔루션 특화
	Siemens	■ 전력 전기화 및 자동화 기술 장점 ■ 스마트 인프라 기반의 변압기, 전력 분배 시스템 주력
냉각 시스템	Vertiv	■ DC 전원 및 냉각 서비스 글로벌 매출 1위
	Johnson Controls	■ 글로벌 냉각 시장 점유율 약 15% ²
	Stulz	■ HVAC 시스템 및 제어 솔루션 특화 기업 ■ 정밀 공조 및 DC 냉각 솔루션 기술 강자

주요 트렌드

01 이중 Sector 기술 적용 확대

- 기존 빌딩·HVAC³ 자동화 기업들은 냉각·제어 기술을 DC 특화 솔루션으로 확장하여 사업 기회 확대↑

02 연관 부문 진출을 통한 사업 확장

- 고전력·고밀도 특화 송변전·배전 인프라 시공 경험 기업⁴의 DC EPC 시장 진출 기회↑

03 냉각기술 고도화로 진입장벽 강화

- 소수 유럽·미국계 기업 시장 표준 선도, 후발 기업은 M&A/기술제휴 통한 시장 진입 고려 필요

1. '23년 기준: 시장 점유율, 시가총액
Source: EY Analysis, 삼성전자산용

2. '24년 기준

3. HVAC: Heating, Ventilation, and Air Conditioning

4. 예) Quanta Services: 전력망 설계·시공·유지보수까지 EPC 일괄 수행

에너지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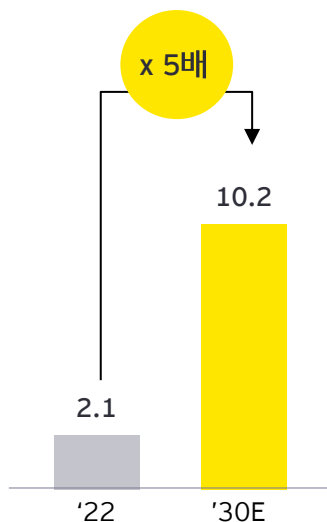
AI 수요 급증으로 인한 전력 부족이 예상되는 가운데, 탄소 중립관련 에너지 규제는 대규모·고효율 DC 에너지원 확보를 주요 이슈로 부각시킴

글로벌 에너지 시장 추이

전체 전력 소비 중 DC 전력 사용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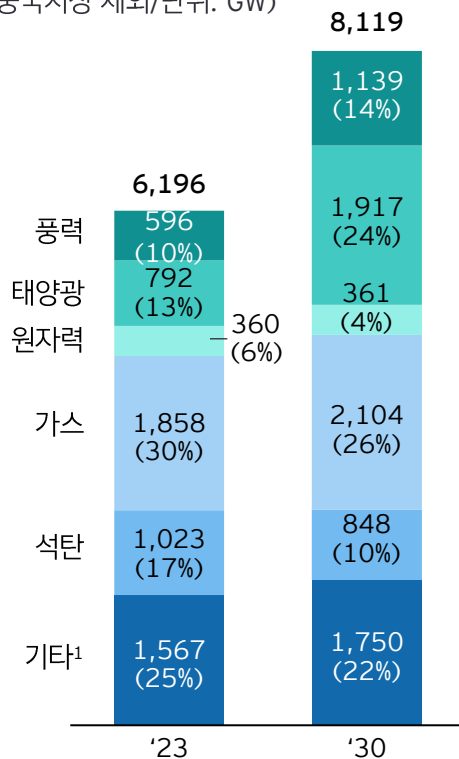
(단위: %)

DC는 글로벌 전력 소비 약 2%, 최근 AI 수요로 전력 부족 발생



글로벌 전원 MIX 설비용량 전망

(중국시장 제외/단위: GW)



주요국 DC 에너지 관련 규제 도입

고효율·청정 에너지 사용 중요도 부각됨에 따라, 각국 전력 소비 감소 및 효율성 제고 위한 탄소 배출 규제 강화

EU

- 에너지 효율성 지침 개정('23)
- '24부터 500kW 이상 DC, 에너지 사용 및 냉각 효율 (PUE 등) 보고 의무화, '30년까지 기후 중립 달성 목표
- 폐열 회수 가능한 경우, 지역 난방망 연계 요구
- Climate Neutral DC Pact(자율협약) 발표('21)
- '3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 사용(RE100) 목표
- 60개 이상 기업(Equinix 포함) '30년 기후 중립 목표 동참

미국

- 미국 에너지부(DOE) DC 에너지 효율 제고 프로그램('16~)
- 애틀랜타 시의회 및 버지니아주, 도심 내 주거지역 DC 신설 제안 법안 상정('24)

아일랜드²

- 공공설비규제위원회(CRU) DC 전력망 연결 조건 부여 정책발표('25)
- DC 운영사³대상 더블린 지역 신규 프로젝트 허가 거부('24)

네덜란드

- 특정지역신규DC건설금지(전력효율지수(PUE)1.2이하요구규제도입('22~)

싱가포르

- '22~'23년 신규 DC 개발허가 중단 등

1. Oil, 수력, Battery Storage, Other Renewables, (Biomass/지열/조력 등) 2. 낮은 법인세로, 현재 14개 DC 건설 중, 40개 추가 승인, DC가 국가 전력 1/5 차지, '26년 예상치로 32% 이상 예측, 이에 따른 규제↑ 3. 엣지코넥스(Edge Connex), 에퀴닉스(Equinix) 등

Source: EY Analysis,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orea Overseas Infrastructure &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 IEA, S&P Global and IHS Markit

에너지 부문

고효율 청정에너지 확보를 위한 에너지원 융합 기술이 주목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향후 SMR, 재생에너지 분야 등이 각광받을 가능성이 높음

에너지원 주요 이슈

- 1 고효율 에너지 확보
- 대규모·안정적 에너지 수급
 - 높은 에너지 비용

- 2 청정 에너지 확대
- 탄소중립(Net-Zero) 대응
 - 각종 규제/경제성 확보의 필요성

에너지원 기술 융합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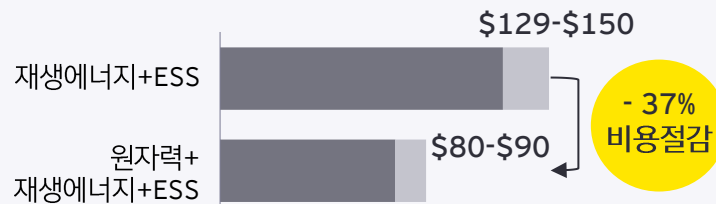
하이브리드 모델 활용

- 정의: 전통 에너지, 재생에너지, 소형 모듈 원자로 (SMR¹) 및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등을 결합한 전력 공급 모델

특징

- 지속가능성: 탄소배출절감, 친환경적
- 운영 안정성: 다양한 전력원 조합/무정전대응²
- 비용 효율성: 고요금시간대배터리재생에너지 활용, 에너지비용절감효과

에너지원 통합 시 비용 절감 효과² (단위: \$/MWh)



관련 주요 유망 기술

원자력 (SMR)

- (기술) 독립 전력원, 소형·모듈형, 재생에너지 보완 역할 가능, 안정적 전력 공급
- (특징) 탄소 배출³, 기후 영향 無, 짧은 건설 기간, 설치 및 전력 확장 용이, 경제성[↑]

재생 에너지

- (기술) 주로 태양광 에너지 기술 개발, 이외 연료 전지 및 수소 에너지 등 R&D 진행
- (특징) 친환경적 / 세제 혜택 및 인센티브 多, ESS와 결합하여 전력망 의존도[↓], 정전 대응[↑]

천연 가스

- (기술) 탄소 포집(CCUS) 기술과 결합한 청정 천연가스 발전 기술 성장[↑]
- (특징) '전환 에너지원³'으로써 역할, 기후 영향 無, 비용 효율[↑], 설치 유연성[↑] 및 24시간 높은 전력 안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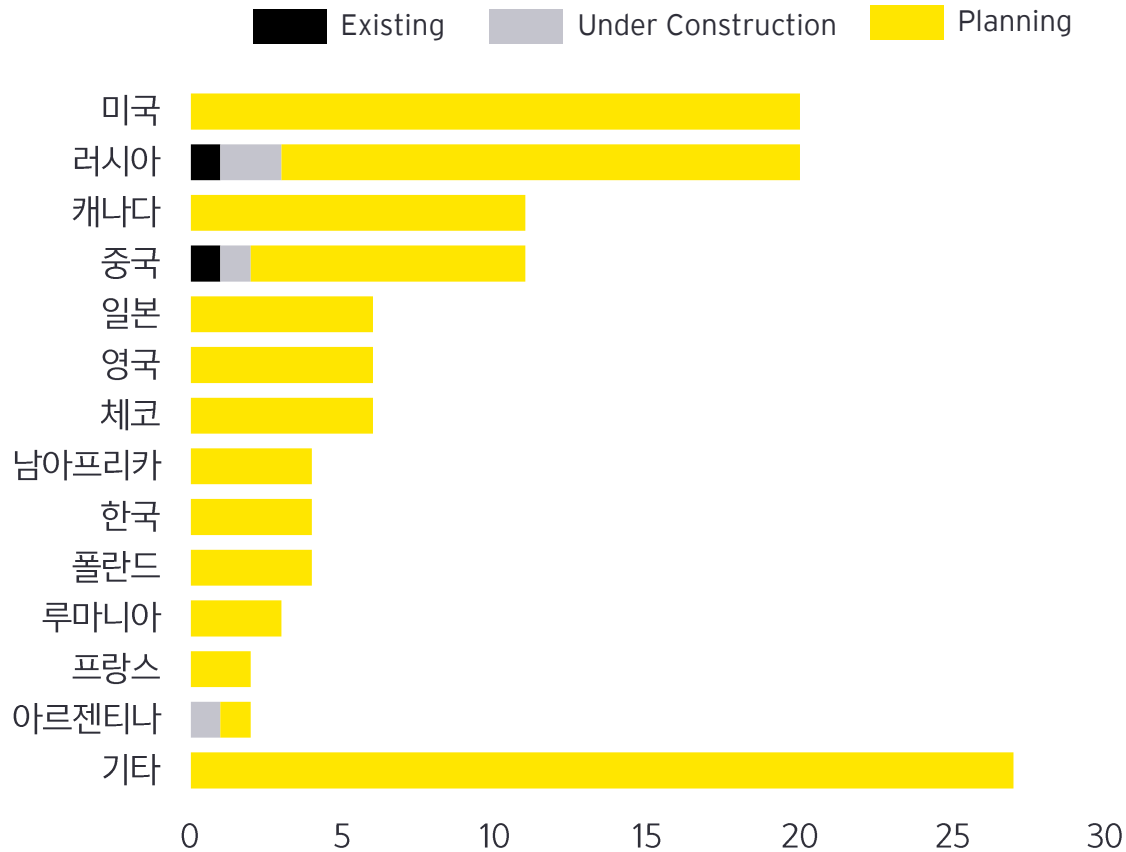
1. 소형모듈원전(Small Modular Reactor): 공장 제작형 모듈 기술 이용, 전기출력 300MWe이하 원자로로, 높은 안정성, 모듈화&신속설치 용이 및 입지 유연성, 높은 경제성 등 장점 지님
 3. 전환 에너지원(Transition Energy Source): 기존 화석연료(석탄, 석유) 중심 에너지 체계에서 탄소중립 체계로 가는 중간단계에서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되는 저탄소 에너지원
 Source: 美 에너지부

2. 캘리포니아 탈탄소화 모델링 시나리오 기준

에너지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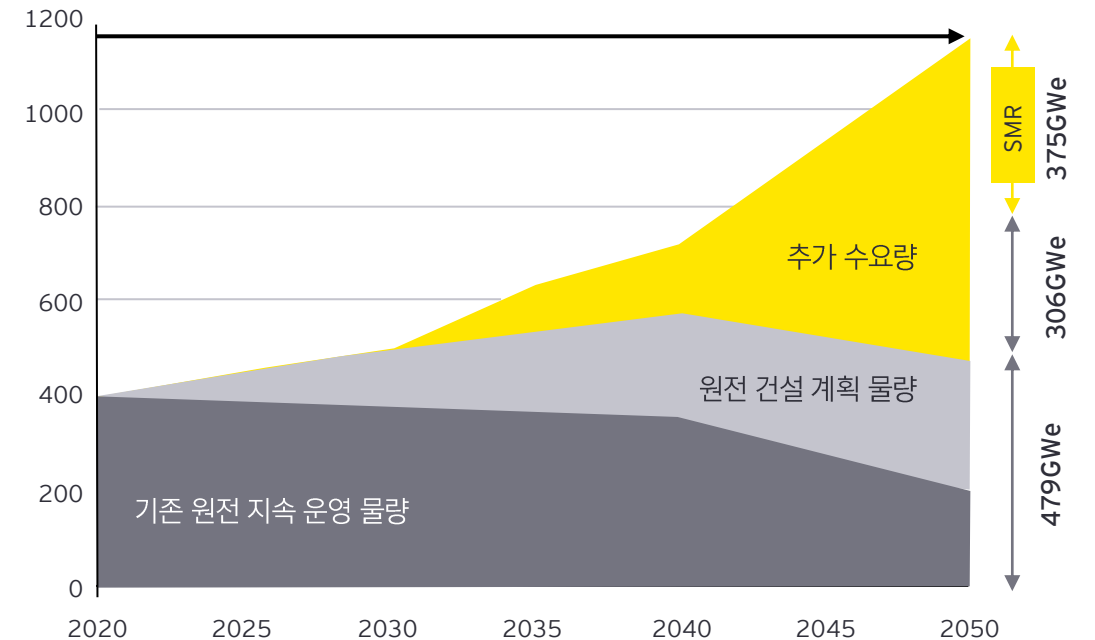
[Back-up] 국가별 SMR 설치 현황 및 글로벌 원자력 수요전망

국가별 상업용 SMR 시설 개수 및 설치 계획



글로벌 원자력 수요 전망

기후변화협약 2050년 시나리오 상 원전 설치용량 = 1,160GWe



에너지 부문

주요 기업들은 에너지 수요 대응, 탄소 중립을 위한 에너지 믹스 최적화로
선제적으로 안정적 에너지원 확보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선도기업 DC 하이브리드 에너지원 도입 계획

주요 특징

 SMR

 천연가스

 재생에너지

수요 기업	에너지 확보사례	에너지 종류
MS	[’26년 가동 목표] 산호세 DC, RNG ¹ (재생가스) 기반 마이크로그리드 도입, 자가발전+태양광	 
Blackstone	[’25.01 인수 합의] 천연가스 발전소 인수 및 재생에너지 PPA로 보완 조달	 
Meta	[’30년 가동 목표] 루이지애나주 DC, 천연가스 초기 가동, 이후 SMR 및 재생E 전환 계획	  
OpenAI (/w 오라클, 소프트뱅크)	[’25.01 발표, ’29년 완료 예정] 스타게이트 프로젝트(\$500Bn): (예상) SMR+천연가스+재생E	  
Equinix	[’30년 RE100 달성 목표] Oklo와 PPA 통해 SMR 조달, ’23년 기준: 96%	 

01 에너지원 믹스(하이브리드) 형태

- SMR, 재생에너지, 천연가스 등
에너지 믹스 병행 전략은
최근 전력 위기 대응책으로 확산

02 에너지 조달 믹스 방식

- PPA+자가발전 결합한 에너지 확보
방식이 효과적 방안으로 부상

03 탄소 중립 대응

-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원자력 및
재생에너지 등을 적극 활용

1. Renewable Natural Gas(재생가능 천연가스)
Source: EY Analy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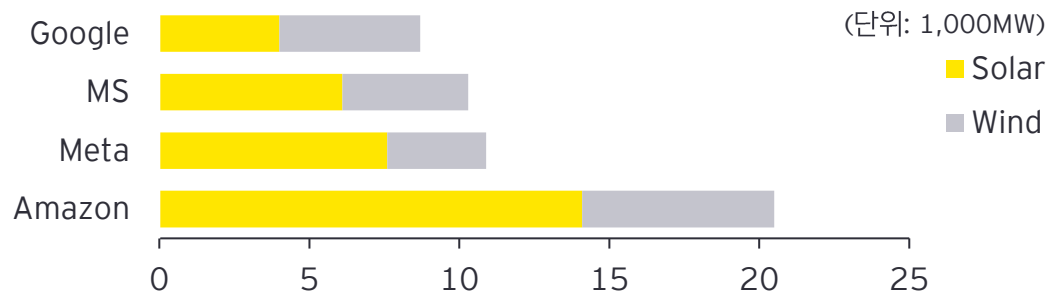
에너지 부문

[Back-up] 주요 에너지 수요 기업들의 탄소중립 이행 현황 및 사례

글로벌 주요 DC 관련 기업의 RE100¹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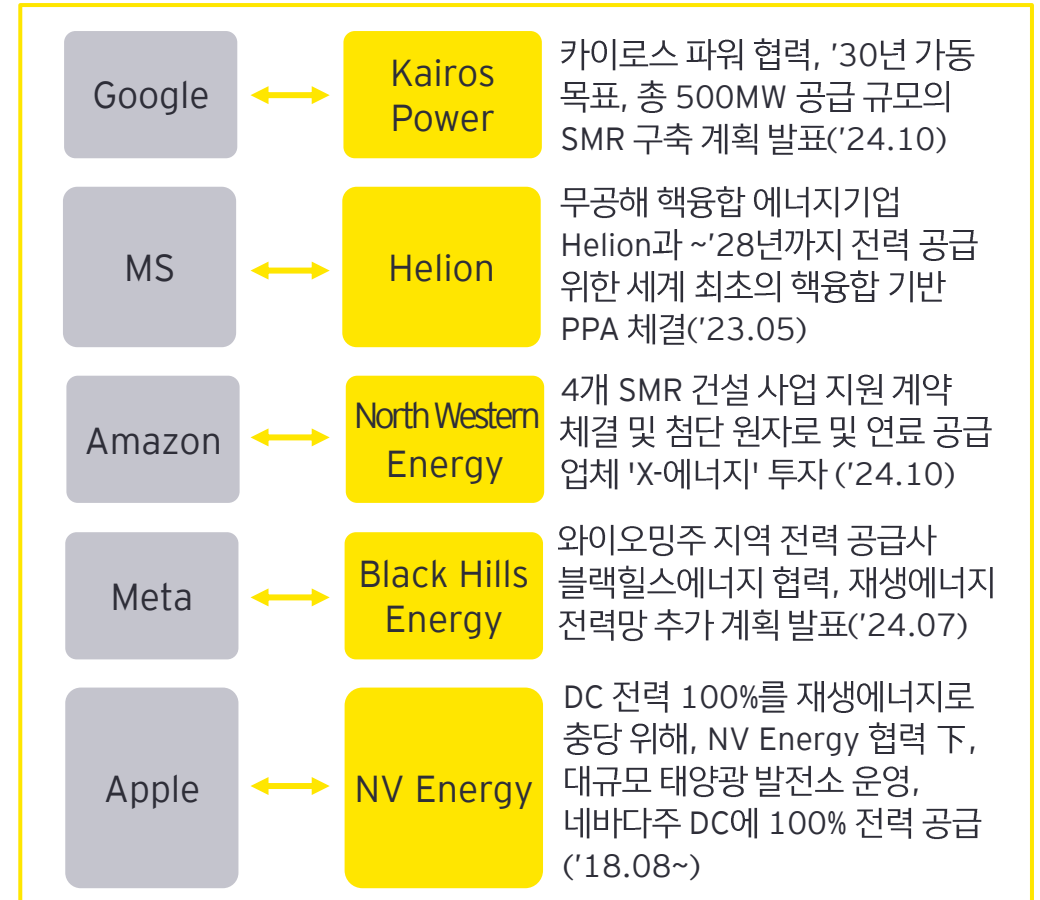
기업	RE100 가입연도	목표 달성 연도	달성 여부	비고
Google	2014 (초기 참여)	2017	0	~'30년 24/7 Carbon-Free 목표
MS	2015	2025	진행	공급망 포함 '30년 목표
Amazon	2019	2030	0	7년 조기 달성('23년)
Apple	2016	2018	0	-
Meta	2018	2020	0	-
Equinix	2015	2035	진행	'23년 기준 96%

'10~'22년, 청정에너지 구매(PPA) 글로벌 상위 기업



1. 이행 수단으로 녹색프리미엄 및 REC 구매, 지분참여, PPA(제 3자 포함) 등이 있음
Source: EY Analysis, IEA

빅테크 기업의 선제적 대응 사례



건설/부동산 및
파이낸싱(PE)

DC 시장 확대에 있어 핵심 비즈니스 형태인 코로케이션 사업의 주요 Player로는 PE와 IDC리츠가 대표적임

주요 DC 개발 및 운영 사업자들

	주요 Player	DC 개발 및 활용 목적	강점	최신 동향 및 참고
코로케이션 중심	PE	■ 고신용도 임차인 기반 높은 투자(임대) 수익을 통한 안정적 자본수익률 확보	■ IDC 개발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 조달 可	■ 전방 산업(AI)의 지속적 성장 예측 시, 투자 확장 가능성 高 ■ DC 투자 PE의 평균 기대 수익률 ¹ : 18% ('22년)
	IDC 리츠 ²	■ 기존 사업 확장 통한 임대 수익 확보	■ 부동산 PF등 대규모 금융 자본 조달 경험 有 ■ 기 투자 토지 활용 可	■ AI 전용 DC 디벨로퍼의 등장으로 시장 경쟁 심화 전망 ■ 고성능DC 및 인터커넥트 ³ 서비스 중심 포트폴리오 구축 전망
	빅테크 기업	■ Capex 증설 ■ AI 등 자사 서비스 개발 인프라 구축	■ 계약에 얽매이지 않고 유연한 DC Capa. 사용 可	■ DC Capex 투자 한계점 도달 가능성 제기 ■ MS는 자국 및 3개국 ⁴ 내 DC 구축 논의 중단 및 연기 발표('25.04)
	기타	■ 자사 내부 DC 구축 및 활용 (국내 통신사) ■ 신사업 전개 (국내 건설사)	■ NA	■ 자사 사용을 위한 DC 구축 중심 전개 ■ DC 디벨로퍼로서의 입지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1. 수익률은 IRR 기준이며, 100명의 글로벌 PE Executive 대상 Survey 응답 기반 기재 (DLA Piper, '22.07)
서버, 네트워크 장비들을 연결하는 솔루션 4. 영국, 호주, 인도네시아
Source: EY Analy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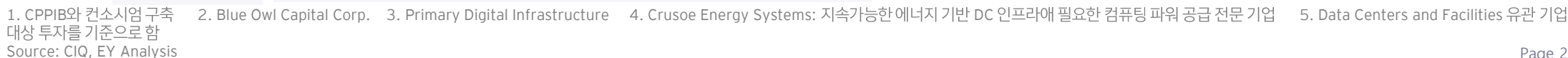
2.. IDC(Internet Data Center) 리츠: 코로케이션 사업에 특화된 데이터센터 리츠를 의미

3. 서로 다른 공간에 존재하는 스토리지,

PE의 IDC 투자 방식

투자 동향

연간 투자 금액 —●— DC향 투자금액 비중



건설/부동산 및
파이낸싱(PE)

[Back-up] IDC 시장의 주요 M&A Deal

인수사 (상세)	피인수사 (IDC 리츠)	특징	투자 금액 (\$Bn)	연도
Blackstone ¹ (컨소시엄)	Airtrunk	■ Airtrunk는 호주, 싱가포르, 일본 등 아시아 내 대규모 DC 보유	14	2024
DigitalBridge Group ² (컨소시엄)	Vantage Data Centers Mgmt.	■ Vantage Data Center에 대한 최종 투자금은 \$11Bn에 달함	9.2	2024
Australian Super(PE)	DataBank (Dallas)	■ DataBank의 포트폴리오 DC 용량 330MW → 850MW 증가 전망	2.0	2024
Brookfield Infrastructure(PE)	Compass Datacenters	■ Compass는 16개 IDC 운영, 버지니아에 초대형 개발 계획 보유	5.5	2023
Bain Capital(PE)	Chin Data Group	■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 등에 DC 보유한	3.2	2023
KKR ³ (컨소시엄)	CyrusOne	■ CyrusOne은 50여개 DC 보유한 중형 리츠	15.0	2022
DigitalBridge ⁴ (컨소시엄)	Switch	■ Switch는 라스베이가스, 애틀란타 중심 대규모 DC 보유	11.0	2022
American Tower (부동산 운용사)	CoreSite	■ American Tower는 해당 인수로 30여개 IDC 보유하며 대형 IDC로 성장	10.1	2022
Blackstone(PE)	QTS Realty Trust	■ 21년까지 역대 최대 규모 인수였으며, 인수 이후 \$10Bn+ 투자	10.0	2021
DLR(IDC 리츠)	Interxion	■ EU 최대 규모 IDC 리츠 인수 통해 유럽 시장 확대 도모	8.4	2018

1. CPPIB와 컨소시엄 구축 2. Eldridge Industries 및 The Carlyle Group과 컨소시엄 구축 3. GIP와 컨소시엄 구축 4. IFM과 컨소시엄 구축

Source: 삼성증권, EY Analysis

건설/부동산 및
파이낸싱(PE)

IDC 리츠 분야의 Peer 그룹 역시 M&A와 JV를 적극 활용해 지속 투자하고 있으나, 총 규모 면에서는 PE 대비 한계를 보이고 있음

IDC 리츠의 확장 방식

	신규 지역 진출	기 진출 지역 내 포트폴리오 확장	
		Hyperscale	중소형
선호 방식	JV	JV	M&A
파트너	현지 기업	PE 등 대형 기관투자자	N/A
자금 조달	채권, 주식, 전환사채 발행, 상업용 모기지담보증권 등		

- 신규 지역 진출 시 투자 리스크 최소화 위해 JV 선호하며, H/S 개발 시 PE 등의 FI를 활용하여 리스크를 헷지하고 있음
- 중소형 규모의 IDC는 주로 M&A 방식을 통해 빠르게 확보하는 전략을 채용하고 있음

주요 IDC 리츠의 투자 동향

Equinix

32개국 260개 이상 DC 운영중인 업계 1위¹ 업체

- JV 활용한 H/S 투자 확장 지속
- GIC/PGM컨소시엄과 신규 하이퍼스케일 투자 발표²('24.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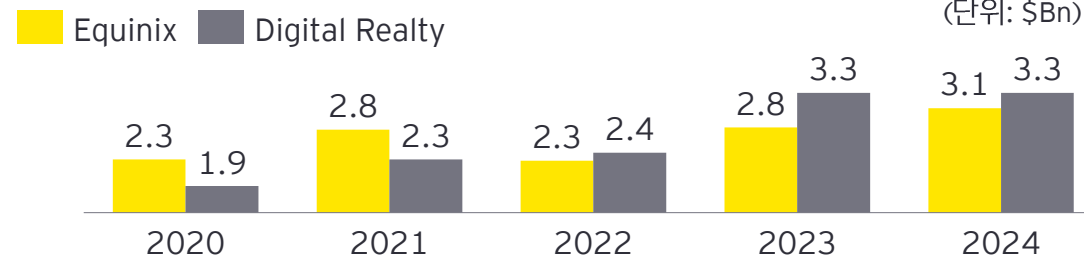
Digital Realty

300개 이상 DC 기반 홀세일 사업 중시 IDC 리츠

- JV 기반 신규 시장³(말레이시아) 진출 확정
- 현지 IDC 및 통신 사업자(BDIA) 파트너사로 발표⁴('25.03)



각사의 연간 Capex 투자 금액 추이



1. '25년 4월 4일 시총 기준, \$74.58Bn 2. 지분비율: GIC(37.5%), CPP(37.5%), Equinix(25%) 3. Digital Realty는 동남아시아에 싱가포르→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순으로 진출중임 4. 지분비율: BDIA(50%), Digital Realty(50%)

건설/부동산 및
파이낸싱(PE)

EPC 업체들이 참여하는 데이터센터 건설 분야에 있어서는, MEP 기술 및 커미셔닝 역량이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됨

DC 건설 단계별 요구되는 주요 역량

핵심 프로세스	DC 시공 시 필요 역량
설계	■ 전력/네트워크/시스템/냉각 설비 등 MEP¹의 안전 운전 환경 설계 능력 ■ DC 운전 정지의 85%²는 MEP 시설에서 발생 ■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DC 환경(온도 및 습도 등) 기준 및 예비 전력 산출 필요
조달	■ 주요 설비를 시공 스케줄에 맞게 조달 및 인입할 수 있는 역량 ■ 전력 인프라(변압기, UPS, 발전기) 조달 리드타임은 12~18개월 소요되는 경우 多 ■ 글로벌 서플라이어(Vertiv, Schneider 등)와의 파트너십 및 공급망 다변화 역량 必
시공	■ 수냉식 냉각 시스템 등 DC의 에너지 효율 개선 및 탄소배출 감축 유관 기술 구현 능력 ■ 모듈러 공법 등을 활용한 공기 단축 기술 가용 여부
+ 커미셔닝 ³	■ 시공 완료 후, 시나리오별 제어 운전 등을 통해 정상 가동 가능 여부 검증 ■ 서버실 CFD⁴ 시뮬레이션, 전산실 열부하 테스트, 목표 PUE⁵에 대한 신뢰성 검토 등

1. Mechanical Electrical and Plumbing: 전력, 냉각, 소방 등 주요 인프라 설비를 통합 관리하는 핵심 엔지니어링 분야 2. Uptime Institute, '22년 DC OEM사 대상 설문조사, N=185 3. 설계부터 공사 완료까지 철저한 관리와 검증을 통해 시스템 성능을 최적화하는 품질 보증 과정 4.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전산 유체 역학 시뮬레이션을 통해 유체 흐름의 주변 환경과의 상호 작용을 예측 5. Power Usage Effectiveness: DC의 에너지 효율을 나타내는 척도
Source: EY Analysis

건설/부동산 및
파이낸싱(PE)

DC 시공의 발주 형태는 발주사의 요구 조건 및 우선순위가 상이하어, 이에 따라 고객 맞춤형 진입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발주자 유형별 DC 발주 형태 및 상세 내용

발주 주체	입찰 대상	발주 형태	특징	EPC 관점 고객사 확보를 위한 고려사항
빅테크 기업	■ 공개 입찰 ■ (Pre-qual¹ 풀 대상)	■ 책임형 CM²	■ 에너지 효율성 등 자사의 까다로운 품질 조건 구현 가능 역량 및 비용 효율성 기반 심사 ■ 자사가 직접 작성한 설계도 기반 발주	■ Prequal 벤더 풀 진입 시도 ■ 주요 빅테크의 벤더 풀 등록 가능한 기술 및 조달 역량 확보
IDC 리츠	■ 제한 입찰 ■ (과거 Track Record 기반)	■ 책임형 CM	■ 품질 및 공기에 대한 신뢰성 있는 벤더 대상 반복 발주 비율 높 ■ 다운타임 발생 시 고객에게 페널티 비용 지급 요구되어, 높은 수준의 MEP 시공 능력 요구	■ 실적 기반 신뢰 확보 ■ 중소규모 DC 하도급부터 진입
PE 투자 IDC 리츠	■ 제한 입찰 ■ (소수 벤더³ 대상)	■ 턴키(BD⁴) ■ 책임형 CM	■ Pre-lease⁵ 기업 요구 수준에 유연하게 대응 가능 업체 선호 ■ 수익률 확보가 최우선 순위로, 임대 시기가 늦어지는 공기 지연에 매우 민감	■ DC 전담 BD 및 기술 조직 구성 통한 전문성 확대

1. Pre-qualification: 기술력, 안전관리, 이전 실적 등 빅테크 기업이 지정한 최소 기준 통과해야 RFP 받을 자격 부여 2. CM(Construction Management) at Risk: 설계를 제외한 시공 프로세스를 EPC사가 모두 담당하며 시공 리스크를 책임지는 형태 3. 과거 실적 기반 발주사 내부에서 시공 역량이 있다고 판단된 업체 4. Design-Build: 설계부터 시공까지 통합 발주 5. DC 건설 이전에 확보된 고객

III

시사점 및 제언

요약 및 시사점

DC 시장 성장이 Legacy Economy 영역의 기업들에게 주는 시사점 및 제언

신성장 동력 확보의 기회		■ 데이터센터 수요는 AI상용화로 인해 폭발적으로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어, DC 건설을 위한 전력망 및 관련 인프라 장비, 에너지, 부동산 및 건설 분야 등이 관련 자본 산업과 함께 큰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 이에 따라 데이터센터 분야는 반도체, S/W와 같은 IT 분야 이외에도, Legacy Economy 기업들에게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유망한 분야임
Legacy Economy 제언	전력 인프라 설비부문	■ 전력 공급자와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시장 기회에 대한 적극적 탐색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 ■ ① 글로벌 냉각 기술 컨소시엄 참여를 통한 기술 표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② 데이터센터 운영사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냉각 효율 개선 솔루션 개발 노력
	에너지 부문	■ 해당 지역별 에너지 관련 규제에 대한 이해: 세액 공제 및 보조금 등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확인하여 운영 비용 절감 관점 Value Proposition 방안 검토 ■ 지역별 전력 공급 안정성 및 노후 발전소 폐쇄 가능성 등 Location Study를 통한 지역차별화된 전략 수립
	건설/부동산/파이낸싱(PE)	■ 데이터센터 시장 확대에 있어 주요 사업자인 PE(상대적으로 공격적)와 IDC리츠,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요구사항 명확화할 필요가 있음 ■ EPC업체는 MEP최적화를 통해 고밀도 랙, 고압전력 등을 안정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함 ■ 전력공급 및 설비 부족은 공기 지연을 유발할 수 있어, 설비 적시 조달 및 전력 인입 능력 확보 역시 중요함

Source: EY Analysis

Contact Point

EY한영 산업연구원

산업연구원장

권영대 파트너

young-dae.kwon@kr.ey.com

실무 총괄

김광현 상무

kwanghyun.kim@kr.ey.com

Team

정현종 이사

hyun-jong.jeong@ey.com

김규민 매니저

gyumin.kim@kr.ey.com

남정언 시니어

jungun.nam@kr.ey.com

EY | Building a better working world

EY is building a better working world by creating new value for clients, people, society and the planet, while building trust in capital markets.

Enabled by data, AI and advanced technology, EY teams help clients shape the future with confidence and develop answers for the most pressing issues of today and tomorrow.

EY teams work across a full spectrum of services in assurance, consulting, tax, strategy and transactions. Fueled by sector insights, a globally connected, multi-disciplinary network and diverse ecosystem partners, EY teams can provide services in more than 150 countries and territories.

All in to shape the future with confidence.

EY refers to the global organization, and may refer to one or more, of the member firms of Ernst & Young Global Limited, each of which is a separate legal entity. Ernst & Young Global Limited, a UK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Information about how EY collects and uses personal data and a description of the rights individuals have under data protection legislation are available via ey.com/privacy. EY member firms do not practice law where prohibited by local laws. For more information about our organization, please visit ey.com.

© 2025 Ernst & Young Han Young
All Rights Reserved.
ED None

APAC No. 050012191

This material has been prepar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is not intended to be relied upon as accounting, tax or other professional advice. Please refer to your advisors for specific advice.

ey.com/kr